



넓혀서 더 크게

2017 첫 만남

4월 13일(목) 오후 2시 안산지부에서 경기지부의 2017년 집단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사용자측은 8개 사업장계양전기 에스제이엠 대원산업 두원정공 신한발브 우창정기 주연테크 현대케피코 15명이 참가했다. 계양전기, 두원정공, 신한발브는 경영진 변화로 사측 교섭대표가 모두 변경되어 처음 안면을 텃다.

지부는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위원들과 르그랑, 말레동현화성, 대창, 삼화지회 등 대각선사업장도 참가해 11개 사업장 44명의 교섭위원이 참가했다.

우창정기 이민형 교섭대표의 인사말로 상견례를 시작했다. 사측은 “중국의 사드보복과 트럼프 미대통령의 대북제재 행보로 정세가 어수선하고 제조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교섭은 전년도에도 잘 마무리했듯이 올 해도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단교섭 확대목표

지부 정규전 지부장은 “그간 집단교섭 사업장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올해부터는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을 확대할 목표로 집단교섭 요구를 간소화해서 크게 쟁점 될 것이 없다. 올 해 교섭도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참가자 전체가 서로 소개를 한 후, 집단교섭 진행방안에 노사대표 서명을 하고 간단하게 상견례를 마쳤다.

2차 교섭은 20일(목) 14시 안산지부에서 열린다.

우리도 꼭 하고 싶다

상견례 후 교섭단 운영계획을 교섭위원들과 공유했다. 첫 만남인 만큼 짧은 뒤풀이도 이어졌다. 올 해 첫 단체협약을 맺으며 집단교섭 참가를 쟁취한 삼화지회 박광수 지회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각 사업장의 포부를 나눴다. 문경복 르그랑코리아지회장은 “집단교섭 참관해보니 교섭 참 쉽다. 우리도 꼭 하고 싶다.”고 해 큰웃음을 줬다. 말레동현화성지회 유생준 수석은 “내년 단협에서 집단교섭 참가를 쟁취하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힘차게 잔을 들었다.

우리 힘의 원천

처음 집단교섭을 참관한 나일권 대창지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이게 끝이에요?”라고 물었다. 설립 첫 해에 어려운 투쟁과 교섭을 책임져 온 그에게 안정되고 간결한 교섭은 낯선 장면이었다. 뒤풀이에서 선배 사업장들은 “교섭의 목표는 요구안 쟁취만이 아니다. 집단교섭에 이렇게 많은 교섭위원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직력, 간부들 역량이 성장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 목표다. 신생사업장

도 많아진 만큼 세심하게 성과를 만들고 챙겨가자. 그 조직력이 바로 경기지부의 힘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넓혀서 더 크게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 해 투쟁이 시작됐다. 지부는 집단교섭 확대를 위한 계획에 집중한다. 말레, 코리아에프티, 대창, 르그랑 등 대각선교섭 사업장 간 부간담회와 조합원 교육이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혼자 외치면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를 내야 하지만, 같이 외치면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약한 목소리에는 큰 목소리가 힘을 보탤 수 있다. 지부 중심의 조직력 강화, 취약 사업장 엄호, 지역연대의 중심. 좋은향기금속경기의 힘의 원천. 집단교섭을 넓히고 키워나가자.



△ (왼쪽 위부터) 집단교섭에서 인사하는 문경복 르그랑코리아지회장, 나일권 대창지회장, 박광수 삼화지회장. (아래) 뒤풀이에서 건배사를 하는 말레동현화성 유생준 수석부지회장